

인간의 감성적 행복감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motional Happiness of Human

저자 (Authors)	정철영 Cheol-Yeong Jeong
출처 (Source)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13(6) , 2019.8, 211-220(10 pages) Journal of the Korea Entertainment Industry Association 13(6) , 2019.8, 211-220(10 pages)
발행처 (Publisher)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 The Korean Entertainment Industry Association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8767954
APA Style	정철영 (2019). 인간의 감성적 행복감에 관한 연구.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13(6), 211-220
이용정보 (Accessed)	가천대학교 203.249.***.201 2019/09/29 19:15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Journal of the Korea Entertainment Industry Association

ISSN 1976-6211(Print)
ISBN 2384-017X(Online)
<http://www.koen.or.kr>

A Study on the Emotional Happiness of Human**Cheol-Yeong Jeong****Professor Department of Ethics Education, Seowon University***ABSTRACT**

It helps to wisely abstain from errors of the a priori subjective emotions related to human emotions, and orders emotions to make rational choices. These emotional happiness of human and moral sensitivities work directly or indirectly in rational choice of rational thought and reason.

Abraham would have been troubled by the divine mandate to sacrifice a son who was only one, and a son who had been healed. Was his reason reasonable at this time? In rational reason, it can be said that the act of dedicating his son is an appropriate act, but is it possible in the human mind? Aristoteles also called human virtue virtue in good for human beings. Because happiness is also a mental activity, we have to know a certain degree about the mind. This $\psi \chi \eta$ (psyche, spirit) spirit is an irrational element that is invisible but an intervention in rational principles. Also C. G. Jung states that all human beings have four dynamic psychological functions that are not visible, and that the mind is driven by these four functional dimensions. This means that the elements of S, Sensing, N, Intuition, T, Thinking, and Feeling are combined. David Hume also emphasized the principle of empathy, asserting that morality can not be derived from reason, and Max Ferdinand Scheler, before grasping the visual characteristics of a person, has already captured the whole feeling of the person, And that the value given to this feeling is the value, and that the function of emotion that is elevated to the perceived object by grasping the value through this process and the value is always preceded by the reason. Emmanuel Levinas states that emotional emotions of love are ahead of reason and that emotions precede human reasoning and rationality is the inability of emotional control that we need rational thought and rational and wise action as reason of control and temperance.

As part of human emotional education, in the 7th curriculum, Bloom's cognitive, perceptive, and behavioral domain, which is a person with integrated thinking, is trying to be a moral practitioner. It focuses on how to act according to the direction of emotions for virtuous acts and how to develop emotions for emotions on behalf of vicious acts. We can design the possibility and direction of cultivating human emotions and emotional happiness and happy sensitivities by the principle of strengthening virtue and the principle of elimination of ill feeling.

KEYWORDS : emotional happiness, happy sensitivities, emotion, reason, perceptual action, sensory action, morality, non morality, compassion, susceptibility

ARTICLE INFO: Received 18 July 2019, Revised 16 August 2019, Accepted 27 August 2019.

* Corresponding author : Cheol-Yeong Jeong

E-mail address: azqqq@naver.com

I. 서 론

인간이 존엄한 것은 자유의지와 이성의 산물인 선의지를 갖는 인간 본연의 기능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능이 발휘되기 어렵다면 적어도 ‘실용적 명인’ 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성적 존재이자 감성적 존재인 인간은 존엄하다고 할 수 있다. I. Kant는 실천이성비판에서 인간의 선험적 이성에서 경험되어진 능력인 실천적 이성을 비판하고 있지만, 주관적이고 지극히 감성적인 선험적 경험은 인간의 행복감 형성에 매우 유용한 요인이다. 주체하지 못하는 감정의 오류를 현명하게 절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감정에 명령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간의 감정과 행복감은 이성적 사유와 이성의 합리적 선택에서 직·간접적으로 작용한다. 인간의 존재자적 의미를 유미한 존재자로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기 위하여 이러한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인간의 탁월한 능력인 정신(精神, mind), 감정(感情, feeling), 정서(情緒, emotion), 공감(共感, sympathy), 행복감(幸福感, happiness sensation)에 대하여 철학적, 심리학적, 윤리학적, 교육적 사고로 접근하여 다양한 이론들의 융·복합적 사유를 선행연구와 다양한 자료들을 비교 분석적으로 살펴보고, 인간의 감정 및 행복감 교육의 중요성과 방향성 제시에 연구 목적을 두고자 한다.

II. 행복감에 대한 철학적 사유

2.1 Abraham을 중심으로

믿음의 아버지는 칭호를 갖는 Abraham은 인간의 감정을 신에게 드린 인물 중 대표적이다.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의 서구를 대표하는 3교는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을 본받을 만한 존재자로서 공통적 인물로 삼는 특징이 있다. 그들의 역사성과 전통성을 나타내는 인물, 신에 대한 인간의 믿음을 드러낸 행위의 대표자, 믿음의 조상, 열국의 아비,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라는 수식어가 붙는 아브라함을 그들은 존경하고 있으며 본받으려 한다. 그들의 유일신 하나님(God)은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아들인 이삭을 자기를 위하여 제물로 바치라고 한다. 이때의 제물은 살아있는 소, 염소, 비둘기 등을 잡아서 피를 빼고 살점을 발라서 신에게 불로 태

워 드리는 행위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 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창세기 22장 2-3절)[1].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것도 백 세가 다되어 얻은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신의 명령에 아브라함의 이성은 과연 합리적이었을까? 합리적인 지각작용(perceptual action)이 일어났다면 아마도 신에게 아들을 드리는 행위가 자신이 신의 명령에 따르는 것에 대한 보상이 그렇지 않은 행위에 대한 처벌보다 크다는 합리적인 이성적 사유와 그것을 선택하는 판단능력에 있을 것이다. 이성적 사유로는 자신의 아들을 바치는 행위가 적합한 행위라고 사유할 수 있겠지만, 인간의 마음으로는 그것이 과연 가능할 것인가? 행위적 차원으로는 간단하다. 실행에 옮기느냐, 옮기지 않느냐이다. 이러한 이분법적 선택에서 아브라함의 감각작용(sensory action) 그리고 마음의 변화는 매우 심각했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결과적으로 신에 대한 믿음에 자신의 감정과 이성 모두를 투사한다. 자신의 아들에 대하여는 죽음 이후에 신이 감당할 것에 대한 믿음이며, 자신에 있어서는 신을 향유 복종의 믿음을 선택한다. 여기서 신의 속성은 매우 감정적이라 할 수 있다. 인간의 이성으로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명령을 행위로 옮기는 것은 수시로 변하는 감정적 변화를 한 곳으로 집중하는 마음 다짐이다. 신은 인간의 감정과 마음까지도 신에게 바치는 것을 자신에 대한 인간의 표현이라고 여겼다. 신의 속성에서 대표적인 감정의 요소는 바로 사랑이다. 하나님이자 유일신은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향한 사랑의 징표로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명령의 요구를 자행한 것이다. 따라서 아브라함은 모든 민족의 대표성을 띠는 신이 인정한 믿음의 조상이라는 호칭을 갖게 된 것이다. 여기서 인간의 감정에 대한 신학적 견해는 아브라함 자신의 마음을 신에게로 향해 있다는 것과 그것을 기반으로 이성적 합리성에 대한 감정적 합리화이며, 끊임없는 마음 다짐으로 선택하고 그러한 행동(行動)을 행위(行爲)함에 있다. 이러한 신의 명령에 대한 순종의 행위는 자신의 신에 대한 사랑의 감정과 더불어 만족감과 행복감을 가져온다.

2.2 Aristoteles를 중심으로

인간의 마음과 정신에 대한 입장에 있어서 고대 철학의 중심부에 있는 Aristoteles는 인간을 위한 선(善)에 있어서 인간적인 덕에 대해 정신의 덕이라고 하였다. 행복(幸福, happiness)도 정신의 활동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에 대해 어느 정도 알아야 한다고 말하였다. 이 $\psi\upsilon\chi\eta$ (psyche, 영혼) 정신(精神)은 비이성적인 요소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성적 원리에 개입하여 이에 반항하며 상응하는 어떤 작용이다. 이 정신능력의 요소는 적어도 자제를 잘 하는 사람에게는 이성적 원리에 순종하며, 자제력 있는 사람과 용감한 사람에게는 그것이 더욱 잘 순종한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 속에서는 그것이 모든 문제에서 이성적 원리와 꼭 같은 음성으로 발언하기 때문이다. 정신 속의 비이성적 요소의 한 부분인 욕망적 요소 내지 일반적으로 욕구적 요소는 이 이성적 원리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한, 어떤 의미에서 이 원리를 나누어 갖고 있다. 우리는 현명한 사람의 정신상태에 관해서 칭찬하며 칭찬받을 만한 정신상태를 덕이라 부른다[2]. 아리스토텔레스는 건강한 정신상태를 덕(德)이라 칭하면서 인간 정신의 건강한 상태를 표현하였다. 자제력 있는 사람, 용감한 사람은 이 비이성적 요소인 욕망적, 욕구적인 정신이 이성적 원리에 상호작용하여 건전한 마음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 인간의 욕망은 건전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기도 하기 때문에 자제와 용감의 기능이 중요하게 여겨진다. 하지만 자제 및 절제는 태연(泰然)의 감정에 관계되며, 용감 및 용기 또한 방종과 무감각의 특징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인간의 비이성적인 요소에서 자유롭지 않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주목하는 바는 바로 행복이며, 행복은 지극히 주관적인 것이므로 추구하거나 도달하려는 바는 개인에 따라 다르다. 다름에 있어서도 인간의 공통적인 요소는 실천이성, 실천적 지혜, 도덕적 덕, 영혼의 덕, 영혼의 탁월성의 핵심개념들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특히, 덕이 있음에서 출발하는 덕스러움과 행복감의 논의는 행위 하는 인간의 감정과 이성의 조화와 균형을 추구하고 있다. 아래의 본문은 인간의 감정과 이성이 융·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잘 드러내 있다.

또 기예의 경우 탁월성의 경우가 서로 유사한 것도 아니다. 기예에 의해 생겨난 것들은 자신들 안에 ‘잘

됨’ (to eu)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들이 어떤 성질을 갖추고 생겨나는 것으로 충분할 수 있는 반면, 탁월성에 따라 생겨난 것(행위)들은 설령 그것들이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정의롭거나 자제 있게 행해진 것이 아니며, 행위자 또한 어떤 상태에서 그것들을 행해야만 정의롭거나 절제 있게 행해지는 것이다. 즉 그는 우선 알면서, 또 다음으로 합리적 선택에 의거해서 행위하되 그 행위 자체 때문에 선택해야 하며, 셋째로 확고하고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상태에서 행위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들 중에서 안다는 것 자체를 제외한 둘째와 셋째 조건은 여타 기예들의 소유 여부와 관련해서는 고려되지 않는다. 반면 탁월성의 소유 여부와 관련해서 안다는 것은 아무런 중요성을 가지지 않거나 작은 중요성을 가질 뿐이며, 나머지 두 조건들이 작지 않은, 아니 전체를 가늠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 이 두 조건들은 정의로운 일들과 절제 있는 일들을 자주 행하는 것으로 생겨난다[3].

알고 있는 것을 행위 하는 것에 있어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습관을 통하여 품성상태에서 행위해야 비로소 정의로운 일들을 행하는 것이 된다. 단순하게 정의로운 행위를 따라 하거나 절제 있는 행위를 했다고 해서 그 행위자가 정의로운 사람이라거나 절제 있는 사람이라고 속단하기에는 이른 감이 있다. 행위자의 품성상태 즉 실천지혜가 정의감이나 절제감의 도덕적 탁월성에 기인하게 됨으로 인해서 행위자의 정의롭고 절제 있는 행위가 그러하게 된다는 의미이다. 모방하여 따라하는 행위로도 그런 평가는 받을 수 있지만, 행위자 자신이 정말 정의로운 사람인지 절제 있는 사람인지지는 영혼 속에서 생겨나는 탁월성의 감정(pathos), 능력(dynamis), 품성상태(hexis)에 따른다. 여기서 아리스토텔레스는 탁월성으로 품성상태를 말하는 것이며, 그것은 중용을 의미한다.

III. 행복감에 대한 심리학적 사유

3.1 C. G. Jung을 중심으로

인간의 정신과 마음에 대한 관심사는 심리학의 여러분과 중에서 정신분석심리, 분석심리, 행동주의심리, 인간중심심리, 최근의 초월심리 영역의 주된 관심사였다. 특히 C. G. Jung은 인간 마음 작용을 분석하여 그 구도를 ‘마음의 나침반’이라 하였다. 모든 인간은 눈

에 드러나지는 않지만 역동적인 네 가지 심리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마음이 움직이는 것은 이러한 네 가지 기능적 차원에 의한다는 것이다. 나침반 구도의 핵심은 감각(S, Sensing), 직관(N, Intuition), 사고(T, Thinking), 감정(F, Feeling)의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복합적 사례로는 감각사고 ST, 감각감정 SF, 직관사고 NT, 직관감정 NF로 기능적 요소가 2가지 복합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또한 개인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NFT의 직관감정에서 사고의 요소도 나타나게 되어 세 가지 기능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성향을 갖게 된다. 예를 들어 세상을 인식하는 데 있어, 개인은 구체적인 현실 세계를 보는 감각(S)을 사용하거나, 주관적이고 가치에 바탕을 둔 기준 즉 감정(F)을 사용한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개인의 심리적 선호, 혹은 성격(character)유형을 구성하는데 기여한다[4]. 융이 제시하는 네 가지의 기본적인 정신적 기능(functions) 또는 과정(processes)을 우리는 매일 사용하고 있다. 융이 말하는 네 가지 과정(S, N, T, F)은 일종의 지향 기능(指向機能, orienting function)으로서, 융은 이 기능을 다양한 조건 속에서도 동일한 원리로 반응하게 하는 특정 정신활동의 형태라고 정의하고 있다[5]. 이러한 인간의 지향기능은 행복감(幸福感)을 향한 인간의 본유적(本有的) 감정(感情)이다. 왜냐하면 내가 좋은 것을 선호하고 선택하는 감정이기 때문이다. 융은 모든 인식 활동을 감각(S)과 직관(N)으로 나누고 이것들은 어떤 합리적인 방향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작용하기 때문에 비합리적 기능이라 하였다. 또한 융은 사고(T)와 감정(F)을 합리적 기능이라 부르는데 그 이유는 이 두 가지 판단 방법이 생활 사건들을 이성의 법칙에 따라 조화시키려고 하기 때문이다. 사고(T)는 아이디어를 논리적으로 연관시키는 기능이다. 사고는 인정에 얽매이지 않고(in-personal) 인과원리에 따라 이루어진다. 사고기능을 선호하는 사람은 사고와 관련된 특징을 발달시킨다. 예를 들면 분석적이고 객관적이고 정의와 공정성의 원리에 관심을 기울이고 비판적이며, 과거 현재 미래 사이의 관계를 중시한다. 이에 반하여 감정(F)은 상대적인 가치와 문제의 장점 등을 고려하여 의사를 결정하도록 하는 기능이다. 감정은 개인이나 집단의 가치를 중시한다. 따라서 감정은 사고보다 주관적이다. 가치는 주관적이지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에, 감정기능으로 판단하기를 선호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나 타인의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긴다. 감정을 선호하는 사람은 의사결정을 할 때에도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기 때문에,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하고, 어떤 문제에 있어서도 기술적인 측면보다는 인간적인 측면을 중시하고, 친화와 온정과 조화를 추구하는 특성이 있다[6].

3.2 王陽明을 중심으로

동양철학에서 이러한 인간의 심리에 핵심적인 인물인 왕양명(王陽明, 1472~1528)은 관학화(官學化) 되고 형식주의에 고착되어 생명력을 잃어버린 주자학을 비판하면서 육구연(陸九淵, 1139~1192)의 심즉리(心即理)를 계승 발전시켰다. 지행합일(知行合一), 치양지(致良知)를 골자로 마음 자체가 바로 이치 및 도덕적 원리라는 심학(心學)을 완성시켰다. 이 마음은 인간이 선천적으로 타고난 본래의 마음인 본심(本心)을 가리키는 것으로 마음의 본체 즉, 심체(心體)라고도 말하며, 이것을 양지(良知)라고 불렀다. 양명은 이 마음의 본체인 양지가 바로 선천적 도덕 원리인 천리(天理)이며, 도덕 주체인 마음과 보편적 도덕법칙인 천리가 같다고 하였다. 인간의 마음은 “텅 비고 영묘하여 어둡지 않다. 여기에 여러 이치가 갖추어져 있고, 모든 일이 여기서 나온다. 마음밖에 이치가 없고, 마음밖에 사물이 없다”고 주장하였다(傳習錄上, 虛靈不昧, 衆理具而萬事出, 心外無理, 心外無物). 효(孝)라는 도덕 원리도 내 마음 속에 이미 갖추어져 있어서 마음속에서 우리나라에서 행하는 것이 참된 효라는 개념이 성립된다. 양명은 도덕 법칙과 마음 관계를 밝히면서 “이치란 마음의 조리(條理)이다. 이 이치가 부모에게 발휘되면 효가 된다(王陽明全集·書者陽書, 理也者, 心之條理也. 是理也發之于親前爲孝)”고 하였다. 다시 말해 “이 마음이 사물에 있으면 이치가 된다. 예컨대 이 마음이 아버를 섬기는 데 있으면 효가 된다(傳習錄下, 此心在物前爲理如此心在事父前爲孝)”는 것이다. 이와 같이 효(孝), 충(忠), 신(信) 등의 도덕원리는 모두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이다. 그것은 곧 마음이 곧 도덕 판단의 기준이 되는 천리(天理)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마음 밖의 어떠한 도덕적 원리, 즉 예(禮)뿐만 아니라 심지어 사물의 이치인 물리(物理)까지도 마음을 떠나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7]. 또한 바쁜 일상에서도 배움의 기쁨을 게을리하지 않으며, 천

리(天理)를 지키고 인욕(人欲)을 제거할 것을 제안하였다. 즉, 행복을 일으키는 주된 감정은 자신의 마음이며, 이러한 마음은 선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인간은 따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렇게 마음작용을 따르면 행위 하는 태도의 삶이 바로 행복한 삶의 모태이다.

IV. 행복감에 대한 윤리학적 사유

4.1 D. Hume과 M. F. Scheler를 중심으로

철학의 토대위에 형성된 윤리학의 관점은 주로 형이상학적이고, 관념적이며, 인식론적인 구조 안에서 주로 인간의 본성과 소중하다고 판단되는 가치를 형성하였다. 심리학적 입장에서 인간의 감정은 이성과 분리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성과 감성은 상호보완적인 관계의 성격을 갖는다. 근·현대에 들어서는 이러한 토대와 더불어 인간의 감성과 마음작용에 현실적이면서 윤리학적인 대안이 있다고 기대하게 되었다. 인간의 이성과 더불어 감정에 주목하는 학자들과 감성이 이성보다 우선한다고 생각하는 윤리학자들의 입장이 있어 왔다. 그 대표적인 인물인 David Hume은 도덕은 이성에서 유래될 수 없다고 단정한다. 우리가 보고 듣고 판단하고 사랑하고 미워하며 생각하는 이 모든 것은 지각작용(perception)으로 인상과 관념으로 나누었다. 도덕이 오직 이성만으로 지각될 수 있는지, 선악의 구별이 이성만으로 가능하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면서 이 밖에 다른 원리의 가능성에 대해 제기한다. 그것은 도덕성은 언제나 실천철학에 포함되는 것이기에 우리 정념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며 오성의 차분하고 냉담한 판단을 넘어서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도덕이 행동과 감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도덕은 이성에서 유래될 수 없다는 것이다.

Hume은 인간 본성의 아주 특징적인 두 원리는 공감의 원리와 비교의 원리라고 하였다. 전자는 소감과 정념의 교류이며, 후자는 우리 자신과 타인의 비교이다. 인간의 정신작용에 있어 이 두 가지 원리 중에서 공감의 원리는 후자에 비해 우월하며, 인간의 정신에 대해 아주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므로 가치와 거의 같은 효력을 갖는 긍지를 낳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후자를 지배할 수도 있다. 이러한 인간의 공감능력은 행복감(幸福感, happiness sensation) 및 도덕감(道德感, morality sensation) 형성의 기초가 된다. 덕과 부덕의

구별에 있어서 판단되기보다는 느낌을 갖거나 느껴짐으로 지각된다. 지각의 산물인 인상은 사람과의 교류나 타인의 고통에 대한 감정에 대한 반응으로서 덕의 감각으로 작용한다. 개인적으로 좋은 감정의 쾌감이 집단이나 사회적으로 확산되어 좋은 감정의 시인이 된다면, 이것은 공통적인 감정으로서 도덕적 소감의 구조가 된다. 이러한 ‘~감’, ‘~감정’은 개인과 집단에 있어서 실천 행위의 매개변인인 의지에 영향을 가져온다. 나아가 ‘싫어요’, ‘좋아요’와 같은 감정표출의 표현은 타자의 행위 유발하거나 제어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8][13].

위와 같은 입장에서 Max Ferdinand Scheler는 파스칼의 ‘심정의 질서(order of the heart)’를 이어받아 이성을 통해서만 파악할 수 없는 감정의 논리와 법칙이 선천적으로 주어져 있음을 선언했다. 이러한 감정의 작용은 대상을 파악하는 데서 이성보다 선행한다. 예를 들어 인적이 드문 곳에서 낯선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의 시각적 특징을 파악하기 전에 이미 그 사람에 대한 전체적인 느낌을 마음속에 포착해 대응 태세를 취하게 된다. 이 느낌 속에 주어지는 것이 바로 가치다. 엄밀한 의미에서 사물은 가치중립적이지만, 가치가 부여됨으로써 인식 대상으로 고양된다. 따라서 가치를 파악하는 감정의 작용은 언제나 이성보다 선행하여 일어난다. 그러나 Scheler는 감정의 작용을 단순히 우리의 느낌에 국한하지는 않는다. 느낌이란 단순히 가치를 파악하는 작용에 불과하다 함으로써 인간의 감정을 통한 가치감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정서와 가치를 구분하기도 하지만 가치의 근본에는 인간의 감정이라는 정서적 단서가 자리하고 있다. 가치의 상대적 값의 기준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속성, 광범성, 기본적 가치, 만족의 강도에 따라 가치의 높고 낮음의 서열을 구분하였다. 서열을 파악하는 감정의 작용이 선취(先取)와 후치(後置)다. 곧 선취란 가치의 보다 높음을 인식하는 작용이고, 후치란 가치의 보다 낮음을 인식하는 작용이다. 이러한 작용이 느낌과 결합함으로써 보다 높거나 낮은 가치의 인식 작용이 일어난다. 근본적으로 가치 파악은 ‘즉각적이고 일회적으로’ 일어난다. 나아가 이러한 가치 파악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가치를 발견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야만 한다. 가치를 발견하고 은폐하는 역할을 하는 작용이 곧 ‘사랑’과 ‘미움’이

다. 다시 말하면 가치는 사랑에 의해 드러나고, 미움에 의해 은폐된다. 이러한 ‘사랑의 질서’가 우리의 심정에는 선천적으로 주어져 있다는 것이고, 이로써 사랑이 인식의 범위를 결정한다고 셀러는 말한다[9][14].

4.2 E. Levinas를 중심으로

인간이 인격의 소유자가 되고 행복한 감정을 함양하려면 행복한 느낌과 정서를 갖는 것과 도덕적인 사랑이 되고자 하는 의지, 긍정의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는 정감, 불의를 보면 행할 수 있는 정의감, 이성적 사유를 통해 얻어진 결과를 실천으로 옮기려는 마음가짐, 도덕적인 사람으로 변화시키려는 교사의 사명감, 지역의 감정을 넘어서서 인류애에 공헌하려는 사회적 시인 등은 모두 우리의 감정 및 공감에서 시작된다. 사랑의 감정과 나와 타인의 공생을 위한 행복감이 없는 존재자는 아직 인간 형태의 존재일 뿐이다.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 연인 간의 사랑의 감정을 통해야 비로소 인간다운 존재자로 감정적 인격의 주체성을 갖게 된다. 이러한 감성적인 인간본질을 타자에서 발견하고 있는 Emmanuel Levinas는 인간의 존재자로서 향유해야 할 것들로 이웃에 대한 사랑을 조성하고 있다. 지극히 감정적인 사랑의 감정은 이성에 앞선다. 감성이 인간의 이성적 사유와 합리성에 앞선다는 것은 감정의 통제 불능에서 우리는 통제가능성과 절제의 요구로서 이성적 사유와 합리적이고 현명한 실천이성을 요구하게 된다. 또한 감정의 변화와 상관없다고 여겨지는 판단의 요청 상황에서 -느끼지 못하고, 체감하지 못하는 것이지 감정은 변화하고 작용하고 있음- 우리는 감정과 무관한 선택이나 현명한 판단을 내린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그러한 판단이나 선택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행복, 기쁨, 즐거움, 이로움, 보다 나은 등의 앞으로 얻어지게 될 감정적 결과로부터 요청되는 합리성이며, 이성적 판단이다. 그러므로 감정이나 마음은 인간의 이성에 앞선 윤리적 행위의 동기이자 근원이라 할 수 있다.

Levinas는 윤리학의 출발점을 바로 인간의 감성에 두고 있다. 기존의 형이상학적 철학적 흐름들의 반성적 고찰을 통하여 신론, 인식론, 관념론, 존재론, 합리론의 주체적 인간성보다는 인간의 어쩔 수 없음의 불가항력적인 사건들에 있어 감정의 주체성에 주목하고 있다. 그는 자기의식을 주체성의 기원, 토대, 근원으로

삼는 전통적인 철학적 사유의 문제를 인식하면서, 인간의 신체(身體)성을 통해 형성되는 주체성을 제시한다 [10]. 또한 주체성의 재건의 견고성을 위해 신체성과 더불어 마음의 주체성, 감성의 주체성을 말한다. 특히 감성의 주체성에서는 인간의 내면화 되지 않은 감정과 인식되지 않는 인간의 감정까지 접근하고 있으며, 이는 타인에 대한 외재성의 성격을 갖는다. 이러한 인간의 주체성의 재건은 대속(substitution)의 개념으로 확고하게 되는데, 대속을 보통 동정, 연민, 공감 등으로 번역되는 동정(compassion)과 구분한다. 대속이 심리적으로 타자의 자리에 있게 하는 역설적 작용을 하기는 하지만, 대속은 동정이나 감정이입이 아니라는 것이다. 레비나스는 “지향성 없는 정감성이 중요하다”라고 보면서, 대속으로 (susceptibility) 설명한다. 즉, 전염, 영향받기 쉬움, 느끼기 쉬움 등을 의미하며, 감수성(感受性)이나 민감성(敏感性)으로 번역할 수 있을 것이다 [11]. 인간의 이러한 본유적인 능력과 관계성 속에서 기능적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민감성이 바로 윤리의 출발점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감정의 기저에는 인간의 행복과 밀접한 관계를 형성한다. 왜냐하면 윤리학의 기본 입장은 나와 타인의 안정과 행복 추구에 있기 때문이다.

V. 행복감에 대한 교육학적 사유

5.1 도덕적 민감성을 중심으로

현대의 창의적이고 융·복합적인 사유구조에 있어서 도덕적 민감성에 주목하는 이유 중 하나는 도덕윤리교육의 목표에서 찾아볼 수 있다. 도덕윤리와 교육과정에서는 Bloom의 인지적 정의적 행동적영역의 통합적인 사고를 갖춘 존재로서 도덕적 실천행위를 하는 존재를 이상형으로 지향하고 있다. 이러한 인간을 육성하려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는 것을 행하기 위한 동기로서 도덕적 열정과 도덕 수행의 의지, 도덕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존재자를 목표로 삼고 있다. 즉, 최대도덕을 지향하는 존재로서 ‘~을 행동하는 것’과 ‘~을 행동하지 않는 것’이다. 최대 도덕감을 지향하는 것이 바로 인류 공동체의 행복을 증진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도덕적 민감성에 대해 민감하게 다루어야 하고 도덕적 민감성 교육의 가능성을 기대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자 관심 갖는 것은 ‘What’ 보다는 ‘How to’ 이다. 기존의 윤리교육 이론들은 인지적 영역에 편향되어 있어 대체로 규범적인 관점을 취하고 있다. 인지적-정의적-행동적영역의 융·복합적인 도덕적 인간을 육성하고자 하는 기존의 도덕·윤리교육 교육과정에서 나타나듯이 그것이 무엇이나에 대한 논의는 많이 있어왔다. ‘무엇’에 대한 것은 ‘~이며’, ‘~이다’의 형식으로 정의(定意)를 내림으로써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물음에 부응해 왔다. 하지만 ‘어떻게’에 대한 방법적 차원에 있어서는 보다 세밀하고 다양한 교육적 시도들이 더욱 진행되어야 한다. 특히, 정의적 영역과 행동적 영역의 교육적 도전들은 보다 많이 시도되어야 한다. 즉, 어떻게 그러한 -덕스러운 행위에 대한 감정의 지향성- 행위를 할 수 있으며, 어떻게 하면 그러한 -부덕한 행위에 대한 감정의 지향성- 행위를 하지 않을 수 있느냐이다. 바로 ‘덕감(德感) 강화’의 원리와 ‘부덕감(不德感) 제거’의 원리로 우리는 인간의 감성과 도덕적 민감성 함양에 대한 가능성과 방향성을 설계할 수 있다. 이러한 교육적 노력은 인간의 행복감 추구를 실현시켜 주기 때문에 가치로운 행위이며, 미래세대의 행복을 위한 의미 있는 행위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교내 급식실에서 밥을 먼저 먹기 위해 새치기 행위를 하는 학생에 대하여 생각해 볼 수 있겠다. 행동분석, 심리상태, 교육방법 및 지도방안의 형태로 접근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행동분석으로는 단순히 밥을 먼저 먹기 위해서, 순서를 기다리기 싫다는 이유로 앞에 줄 서 있는 학생들을 무시한 채, 제멋대로 줄에 끼어드는 행위이다. 심리상태로는 새치기를 하는 학생들은 도덕적 원리를 따르는 초자아(super ego)에 비해 쾌락의 원리를 따르는 원초아(id)가 강하다. 따라서 이들은 도덕적 가치보다 자신의 이기적 본성이나 이들을 더 추구하는 경향을 가진다. 또한 순간의 쾌락을 위해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행동분석과 심리상태에 대한 견해를 기초하여 올바른 행동변화나 가치변화에 대한 교육적 방법으로는 먼저, 이런 학생들은 도덕성을 발달시켜주기 위해 자신의 잘못에 대해 수치심을 느끼고 반성하게 해야 한다. 따라서 잘못된 행동을 반복하지 않고 도덕적인 행동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이에 대한 방법으로는 몇 가지 처벌이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

다. 첫째, 제거성 처벌로 학생들이 좋아하는 밥을 먼저 먹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새치기 한 학생들은 급식소에서 급식시간 동안 출입할 수 없게 한다. 둘째, 3진아웃 제도로 새치기를 처음 할 경우, 학생을 따로 불러 훈육하고 벌점을 부여한다. 이럼에도 그러한 행위가 계속된다면 학생들이 기피하는 처벌인 화장실 청소를 시킨다. 벌점이 기준점을 초과할 경우 교내봉사사로 이어지는 과정을 도입한다. 이와 같은 처벌 또한 중요한 학생통제수단으로 작용하지만, 학생들의 근본적인 도덕성 향상과 비도덕적 행위의 감소를 위해 교사와 선도부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12][15].

위 내용을 분석심리학자인 융의 이론을 근거로 하여 학생의 새치기 행위를 분석해보면, 외향의 성향과 감정형의 유형에 가까운 성격일 것이다. 만약 혼자 단독 행위를 하였다면 더욱 그러하다. EF(extra & feeling) -외향성(Extra), 내향성(Intra), 사고형(Thinking), 감정형(Feeling)의 성격유형(Character type)을 표기한 것임- 즉, E는 주어진 상황에서 자신의 주관성이 객관성에 구애받지 않고 자기중심적으로 행동하려는 경향이 매우 높은 유형이므로 그러하다. 또한 F는 지극히 충동적인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외향과 감정의 유형은 유독 튀는 행위를 거침없이 자행하기 때문이다. 앞서 제시된 아브라함도 EF의 유형일 수 있다. 창세기에 따르면 신의 명령받은 바를 아침 일찍 즉시 실행하였고(창22:2절), 아들을 제물로 삼으려 결박하고 칼을 들어 잡으려 했던(창22:9절) 점이 그러하다. EF 유형의 특이점은 바로 즉흥적이고, 자기중심적이며, 무언가 실행에 옮기기로 마음먹으면 거침없이 실행한다는 점이다. 때때로 우유부단하고, 산만하며, 눈물을 잘 드러내고, 주변에서 감정적 또는 감성적이라는 말을 듣기도 한다. David W. Keirsey는 위의 새치기한 학생을 디오니소스적 기질을 소유한 자유분방한 경험주의자로 구분할 것이다(Keirsey, 2008). 기다리는 것, 아끼는 것, 모아두는 것, 준비하는 것, 내일을 위해 사는 것은 이들에게 어울리지 않으며, 본질적으로 충동적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렇게 튀는 행동 자체를 즐기면서 주목받는 것에 대한 희열을 느낄 수도 있다. 만약 위 학생이 단독행위자로서 I형에 속한다면, 아마 사전에 비슷한 행위를 반복적으로 행했거나, 매우 많은 양의 노력이 있었을 것이다. 내향형들이 단독적으로 저런 행위를 한다는 것은 지극히 드문 일이며, 특수한 환경이 아니고서는

나타나기 어려운 성격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이다.

5.2 행복감의 방향성을 중심으로

어떤 사회나 집단에서 시인하고 규범화된 도덕적 가치들에 있어서 나의 주관적인 감정이 우선순위를 갖는다면 아마도 도덕적이지 않은 부도덕감을 갖게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감정은 도덕적 행위를 하게 된다면 큰 감동이나 도덕적 열망, 의지, 민감성과는 동떨어진 행위에 그칠 것이다. 도덕적인 행위를 자행했다면, 그 감정까지 도덕적 감정인 덕감을 형성했다고 할 수 있는가? ‘그렇다’ 일 경우 가장 이상적인 탁월성의 실천적 지혜를 겸비한 인간상일 수 있겠지만, ‘아니오’ 일 경우 감정과 행위의 불일치의 사례가 될 수 있다. 행위는 도덕적 모형일 수 있지만, 그 행위의 주체자 감정은 덕감이 아닌 부덕감 또는 무감정일 수 있기 때문이다. 덕감 없는 도덕행위의 습관화의 오류는 바로 언제든지 감정의 변화에 따라 도덕적이지 않은 행위를 저지할 수 있고, 자신의 습관적 행위에 도덕적 의지나 열정이 없다는 것이다. 위 사례에서 자신의 가치와 본능, 이기적 감정, 충동적 감성 등이 줄을 서서 순서를 기다리는 행위 보다 우선시하는 마음상태에 있다면 행위의 변화보다 감정의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 즉, 자신의 소중한 감정, 욕망, 본능보다 왜 그러한 감정을 절제하면서까지 줄서야 하는지에 대한 감정 교육과 타인의 감정에 대한 민감성 교육에 주목해야 한다. 또한 행동변화의 교육 및 지도방안을 실시하면서 감정변화와 감정에 대한 덕감의 형성에 균형과 조화를 추구해야 한다. 우리는 도덕적이지 않은 행위의 행동변화에 대한 인지적 차원의 교육은 대체로 시도되고 있지만, 이에 비해 행동변화 전·후의 감정변화나 덕감과 부덕감, 열정과 의지, 타인의 고통에 대한 감정과 민감성에 대한 교육적 시도는 상대적으로 나약한 형편이다.

이제껏 우리는 그러한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들을 이성 중심의 정형화되고 규범화된 철학과 윤리학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런 행동이 있기 이전에 행동 주체자인 인간 자체의 특성과 진행되는 특수한 상황에 대하여 감성 중심의 비정형화되고 공감되는 윤리학적 도덕 심리학적인 노력에 귀 기울여야 한다. 특히 인간의 감정을 이성 못지않게 중요하게 사유하고, 도덕적 민감성을 추구하고 교육적 가치에 대하여 논하려면 말

이다. 인간의 합리성, 집단의 합리적 선택의 상황에서 개인의 감정과 감수성은 구속되기 마련이다. 감정의 구속을 요구하는 환경에서 개인의 민감성은 상처를 받게 된다. 아마 감정형의 유형들이라면 더욱 그러할 것이다. 아브라함 신앙적 모범 모델의 윤리적 가치는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에 대한 믿음의 강화와 회피하고자 하는 나약함의 제거이다. 불확실한 상황에 대한 자신의 신념의 나약함에 대한 믿음의 의지를 더욱 강하고 확고하게 다짐하면서 행위에 옮기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덕감 강화와 부덕감 제거의 원리와 일맥상통한다. 도덕적으로 해야만 하는 행위에 대한 마음변화와 변화된 덕감의 강화, 그리고 그것을 방해하는 하기 싫음이나 회피의 감정 제거이다.

VI. 결 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간의 이성(理性)은 근본적으로 감정(感情)에 지배를 받을 수 있으며, 인간의 정신 및 영혼은 지극히 감성적이라는 사실이다. 감정적이라는 인간 본유의 특징은 성격적으로 접근 가능하며, 특히 자신의 행위를 통하여 밖으로 드러난다.

본 연구에서 다양한 학제적 접근을 통하여 인간의 감성(感性)과 행복감(幸福感)에 관하여 명료하게 나타나는 것을 밝혀보았다. 그것은 첫째, 인간의 감정 및 행복감은 인간의 행위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 둘째, 인간의 지각작용과 더불어 공감대를 형성하고 타인의 감정을 수용할 수 있는 감각작용의 지향성이 덕감으로 향해야 한다. 셋째, 기질적으로 타고난 인간의 성향에 따른 감성이 있지만 타인의 감정에 반응하는 민감성과 도덕적 감정을 갖는 덕감을 함양할 수 있다. 넷째, 인간의 마음작용에 따라 인욕을 제거할 수 있고, 천리를 보존할 수 있다. 다섯째, 인간의 감정은 타인의 고통에 강하거나 약하게 반응하고 있다. 여섯째, 인간의 감성, 감정, 공감은 긍정적인 마인드 형성 및 덕감 강화의 원리로 민감하게 교육되어질 수 있다. 일곱째, 인간의 감정은 이성과 더불어 행복감 형성에 비교적 많은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다.

인간 감성과 행복감은 전통적인 철학흐름의 시대적 변화에 따른 이성중심에서 감성중심의 사유체계의 전환을 통하여 조화롭게 다듬어져야 한다. 또한 좋은 감정에서 비롯되는 행복한 감각을 지향하는 것을 시작으로

로 이성과 감성의 융합작용을 통해 일어나는 인간의 내적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한다. 이러한 행복감 및 덕감에서 비롯되는 행위를 통해 우리는 온전한 인간 이해를 가능하게 할 수 있으며, 이것은 인간의 탁월성인 지각작용과 감각작용의 결과물로 드러나는 지(知)·정(情) 합일의 행복한 행위라 할 수 있겠다.

References

- [1] Korean Bible Society, *The HOLY BIBLE Old and New Testaments Korean Revised Version*, Korean Bible Society, 2004.
- [2] Aristoteles, *Ethica Nicomachea*, Window, 2008.
- [3] Aristoteles, *Ethica Nicomachea*, Way, 2018.
- [4] Alice M. Fairhurst, Lisa L. Fairhurst, *Effective Teaching Effective Learning*, Asesta, 2009.
- [5] Katharine D. Myers, Linda K. Kirby, *Dynamics and Development of Psychological Type*, Asesta, 2009.
- [6] David Keirse, *Please Understand Me II: Temperament Charater Intelligence*, Printed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First Edition, ISBN 1-885705-02-6, Prometheus Nemesis Book Company, 1998.
- [7] Wangsu-In, *Practical Living Gyeonseublog*, Cheong-gye, 2007.
- [8] David Hume, *A Treatise of Human Nature*, edited, with an analytical index, by L. A. Selby-Bigge, Oxford Univ. Press, 1980.
- [9] Hyeong Kyung, *Theory and History of Ethics*, Bag-yeongsa, 2002.
- [10] Emmanuel Levinas, *Totalité et infini*, by E. Levinas, Copyright © 1988, Springer Netherlands All Rights Reserved, Korean Translation Copyright © 2018 by Greenbee Publishing Company.
- [11] Emmanuel Levinas, *Autrement qu'être ou au-delà de l'essence*, Copyright © Kluwer Academic Publishers, 1974, 1991 Korean Translation Copyright © In-Gan-Sa-Rang Publishing Company, 2010.
- [12] Myers. Isabel Briggs & Myers. Peter B, *Gift Differing: Understanding Personality*, Davies-Black Publishing, 1995.
- [13] Alan L. Lockwood, *The Case for Character Education*, Copyright © 2009 by Teachers College University, Korean Translation Copyright © 2018 by KYOYOOKKWAHAKSA.
- [14] In-Ju Jeong, Bo-Young Kim, *Effects of Peer-Counseling Training Program on Relationship and School Adjustment of the Middle School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Entertainment Industry Association Vol. 9, No. 1, pp. 109-118, 2015.
- [15] Cheol-Young Jeong, *A Teaching and Learning Plan for Pre-service Peacher Character Cultivation*, Journal of the Korea Entertainment Industry Association Vol. 10, No. 2, pp. 139-148, 2016.

인간의 감성적 행복감에 관한 연구

정철영

서원대학교 사범대학 윤리교육과 교수

요 약

인간의 감성은 인간관계 속에서 발현되는 선험적으로 주체하지 못하는 감정의 오류를 현명하게 절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감정에 명령하기 때문에 나와 타인의 행복(幸福)에 기여하게 된다.

Abraham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것도 백 세가 다되어 얻은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신의 명령에 고민에 빠졌을 것이다. 이때 그의 이성(理性)은 과연 합리적이었을까? 이성적 사유로는 자신의 아들을 바치는 행위가 적합한 행위라고 사유할 수 있겠지만, 인간의 마음으로는 그것이 과연 가능할 것인가? 또한 Aristoteles는 인간을 위한 선(善)에 있어서 인간적인 덕에 대해 정신의 덕이라고 하였다. 행복(幸福)도 정신의 활동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에 대해 어느 정도 알아야 한다고 말하였다. 이 $\psi\upsilon\chi\acute{\eta}$ (psyche, 영혼) 정신(精神)은 비이성적인 요소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성적 원리에 개입하는 어떤 작용이다. 또한 C. G. Jung은 모든 인간은 눈에 드러나지는 않지만 역동적인 네 가지 심리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마음이 움직이는 것은 이러한 4가지 기능적 차원에 의한 것이다. 이것은 감각(S, Sensing), 직관(N,

Intuition), 사고(T, Thinking), 감정(F, Feeling)의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David Hume은 도덕은 이성에서 유래될 수 없다고 단정하면서 공감의 원리를 역설하였으며, Max Ferdinand Scheler는 어떤 사람의 시각적 특징을 파악하기 전에 이미 그 사람에 대한 전체적인 느낌을 마음속에 포착해 대응 태세를 취하게 되며, 이 느낌 속에 주어지는 것이 바로 가치이며,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가치가 부여됨으로써 인식 대상으로 고양되고, 가치를 파악하는 감정의 작용은 언제나 이성보다 선행하여 일어난다고 하였다. Emmanuel Levinas는 지극히 감정적인 사랑의 감정은 이성에 앞서며, 감성이 인간의 이성적 사유와 합리성에 앞선다는 것은 감정의 통제 불능에서 우리는 통제가능성과 절제의 요구로서 이성적 사유와 합리적이고 현명한 실천이성을 요구하게 되기 때문이라고 언급하였다.

인간의 감성적인 교육의 일환으로 도덕윤리과 교육과정에서는 Bloom의 인지적 정의적 행동적영역의 통합적인 사고를 갖춘 존재로서 도덕적 실천행위를 하는 존재를 이상형으로 지향하고 있다. 어떻게 하면 덕스러운 행위에 대한 감정의 지향성을 따르는 행위를 할 수 있으며, 또 어떻게 하면 부덕한 행위에 대한 감정의 지향성을 함양할 수 있을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러한 문제해결의 방향성은 바로 ‘덕감(德感) 강화’의 원리와 ‘부덕감(不德感) 제거’의 원리로 우리는 인간의 감성(感性)과 행복감(幸福感) 함양에 대한 가능성과 방향성을 설계할 수 있다.

핵심어 : 행복감, 감정, 행복한 민감성, 이성, 지각작용, 감각작용, 도덕감, 부덕감, 동정심, 감수성



Cheol-Yeong Jeong received the Doctor completion in the department of education psychology and ethics education from the Chungbuk University. Professor in the department of ethics education from Seowon University.

E-mail address: azqqq@naver.com/micj@seowon.ac.kr